# 제4강: 측정과 규정, 논리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

## ◆ 1교시: 측정과 규정에 대하여

▲ 측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이 박홍규 이 분의 생각을 전반적으로 잘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주로 어떤 학문적인 사고와 자의적인 사고의 차이점을 많이 강조했죠.

그리고 오늘 얘기할 '추상한다'라는 말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보다 일관적이고 보다 보편적인 차원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abstract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인간의 특이한 능력인데요. 그런 것이 서양 사상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것이 유클리드기하학이죠. 물리적 세계로 가면 측정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측정하지 않고서 우리의 느낌이나 감각, 흔히 말하는 감(感)으로 하는 것과 측정은 다르죠, 그래서 물리 세계에서는 측정을 해서 과학적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현재 음향학 같은 학문은 굉장히 발달해 있죠. 피아노 조율을 한다거나 음파를 조사한다거나.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죠. 바다 속에서 음파를 쏘면 깊이까지 잴 수 있죠.

후각에 관한 과학은 아직 없죠. 그냥 담론이야 있겠지만 과학은 없습니다. 보통 후각에 관해서는 과학이 아니라 냄새를 맡는 사람을 동원하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잴 수 있다면 분석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 사람을 불러서 냄새를 맡게 하죠. 다 전문가가 있죠.

컴퓨터가 계속 발달하면 후각도 분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것이 science의 수준으로까지 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맛도 일정 부분 분석도 하지만 그것 또한 science라고 할 정도의 담론은 아직 없죠. 왜 그러냐. 간단하죠.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보통 영미권에서 하는 사회과학은 굉장히 허구적인 겁니다.

대단히 허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없는 것을 억지로 재서 하는 것이거든요. 죄수의 딜레마라든지. 사실 그런 건 굉장히 과학적인 외향은 띠고 있지요.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컴퓨터를 이용한다든가.

www.artnstudy.com

그러나 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이지만, 상당 부분 허구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건 잴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임의적으로 “30% 이하면 어떻다”는 식으로 항상 재단하죠. 그러나 이게 끊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잴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층 같은 경우도 돈을 얼마 가진 정도에 따라 무슨 층, 무슨 층. 사실 영미권에서 하는 사회과학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고. 유럽이나 동양의 학문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하죠. 그래서 배척하죠,

그러나 사실 영미권의 학문은 인식론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허구적인 것입니다. 모양만 번듯합니다. 그래프도 한 종류가 아니죠. 그러나 결국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일상에서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온갖 휘황찬란한 것들을 이용해 포장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액세서리죠.

굉장히 허점이 많은 얘기를 온갖 수학과 컴퓨터와 그래프를 동원해서 포장하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미 사회과학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간에, science라고 할 정도의 인식. 물론 science라는 것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요. science라는 것도 사람이 틀을 만들어서 투영해서 보는 것인데, 그 틀이 정말 사물 자체를 보여준다는 보증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 입장도 있지요.

nominalism이라고 하죠. 유명론(唯名論)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다. 과학은 발견하는 것이다. 실제론, 이것이 객관주의(客觀主義)죠. 이런 입장과 논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의 포인트는 measurement, 측정이죠.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하는 방식의 담론들도 물론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고 context는 있겠지만, 비판적으로 보면 그 밑바탕에는 존재론적인 fiction이 많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돈부터도 그렇죠. 사과 하나와 책 한권? 비교할 수가 없죠. 억지로 하는 거죠. 숫자로 만들어서.

합리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볼 적에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물을 더 잘 볼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고 하죠. 비판까지는 좋은데 그럼 딱히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갖고 사물을 볼 수 있느냐고 반론을 하죠.

항상 합리주의자들과 합리성의 한계를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는 논쟁이 있지요. 재어야 하는데 재지 않고 내포, implication 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 때 내포라는 말은 logic, 개념만 갖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유적 공간, 이론적 공간에서

www.artnstudy.com

성립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사유할 적의 생각이 공간에서의 질료라는 거지요. data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재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근대초지요. 스콜라 철학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물과 직접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론가들이고 수도원에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읽고 분석하는 문헌학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새로 등장한 신흥 부르주아 계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 그 사물을 만지는 사람들이죠. 인쇄업자, 무역업자, 기계 수리업자, 항해 하는 사람, 제분소 경영인 등.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부르주아 계층이거든요. 사물을 손으로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인식이 다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책 읽고 분석하는 사람들과 인식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근대과학의 출현을 너무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사회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인들 중심으로요. 중인들은 사물을 직접 만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지요. 기본적으로.

플라톤에서 물리 세계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세계, physical world와 physical하지 않는 세계가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세계, 개념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와 실제로 우리의 신체가 개입하는 물리적인 세계는 구분된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경우 그런 것을 존재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는 것이 정말 현실 세계와 separation,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설명 방식일 뿐이냐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를 그런 식으로 많이 공격하죠. 그런 식으로 분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리한 것을 보통 초월적이라고 하죠. 과연 플라톤이 얼마만큼 초월적이냐는 문제는 논쟁이 많고 복잡한 문제죠.

파이돈 같은 초기의 것을 보면 명확하게 나누어지지만 그 사람의 이데아론도 평생에 걸쳐서 다듬어지기 때문에 말년에 가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플라톤도 접근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학적인 눈, 문학적인 눈, 정치적인 눈 등 어떤 눈으로 보는냐에 따라서 플라톤이란 사람

www.artnstudy.com

은 아주 달라지는 사람이죠.

▲ 이데아의 본래적 개념

그 다음에 88쪽.

구체적인 것, 경험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올라간다. '보다' '알다'라는 말은 첫째, 눈으로 본다는 말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자체를 넘어서 안다는 것 일반으로 가는 겁니다.

안다는 말이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사물의 determination, 규정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너 철수 알아? 그때 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주 원초적이고 일반적으로 길에서 만났을 때 알아본다는 의미죠.

그런데 알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엇을 알아본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무엇을? 가장 추상적으로 말하면 규정을 알아보는 거죠. 그 규정의 가장 원초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생김새이지요.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모양이죠, 생김새. 원래 이데아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는 반대로요. 원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규정하는 가장 원초적인 것은 생김새죠.

이데아라는 것은 원래 생김새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름이죠. 하지만 이름은 사회적인 거죠. 우리가 김철수를 안다고 할 때, 신체적 지각으로 한다면 생김새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름이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읽어보면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죠. 빨리 달리는 아킬레우스, 이름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꾀 많은 오디세우스, 흰 팔의 헤라, 벼락을 던지는 제우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그 존재의 가장 일차적인 규정인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여러분이 고대 서사시를 읽어보면 김철수라고 하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것 또한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생겼냐. 누구의 가족이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인지가 발달하면서 점점 어떻게 변화하냐면 어떤 사람의 규정이란 것이 이것만이 어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점점 사물을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죠. 생김새나 누구누구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것 말고도요,

예컨대 성격 같은 것. 이 정도가 되면 꽤 깊어진 거죠, A라는 사람의 성격을 한 번 봐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A라는 사람의 성격은 한 일 년 사귀어 봐야 '아 저 사람은 저런

www.artnstudy.com

성격이구나'하고 대충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규정이라는 개념은 계속 남아있는데요. 규정은 규정인데 그것을 찾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방식이 점점 달라져서 그 사람의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규정은 이것이다'는 식으로 발전하는 거지요.

그와 같은 변화의 극한이 뭐냐면 바로 이데아입니다. 이데아라는 것은 딱 주어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호메로스』 시대의 규정부터 시작해서 진화한 후에 플라톤에 와서 드디어 본질이 되는 겁니다.

개념이 점점 변화해서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본질, 그 사람의 essence라는 겁니다. 물론 희랍어에는 이런 말은 없죠. 이건 라틴어에서 온 말이죠. 요즘 말로는 본질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죠.

▲ 철학사를 공부하며 빠지기 쉬운 맹점(盲點)

재밌는 것은 어떤 사회가 어떤 성격을 띤 사회를 아는 갖가지 방법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유행가를 들어보면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방법인데요. 그 사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이냐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회의 사람들이 사물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사람들의 경우엔, 남녀의 본질이 있고 사농공상의 본질이 있다고 본 것이죠. 사(士)는 이래야 하고 농업은 이래야 하고 남자, 여자는 이래야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그 본질이 많이 무너졌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가 essence라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는 것이 그 사회의 성격에 상당히 중요한 변별점이죠.

규정을 찾기는 찾되 그 방식이 점점 더 추상적이 되고 이론적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철학사를 공부할 때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공부할 때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찾는 것이 아니죠.

이미 다 찾은 상태에서 후대 사람들이 정리해놓은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는 데카르트처럼 사유해보고 스피노자처럼 고민해 보고 라이프니치처럼 연구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리주의를 안 것이 아니죠.

이미 철학사를 지나서 사람들이 정리해놓은 합리주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허

www.artnstudy.com

구적인 겁니다. 철학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왜곡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철학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마치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보기 전에 그 이름부터 아는 것과 마찬가지죠. 원칙적으로는 중국의 모든 지역을 가봐야 하는 거죠. 그것을 다 합해서 중국을 이야기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인간의 인지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아직 가보지 않았음에도 중국의 전체를 알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담론의 세계도 그렇고 실제 삶도 그렇고.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인 것으로 내려가면서 추상적인 차원의 것만 이해해서 얘기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abstract한 것은 이미 구체적인 것들을 전제로 해서 형성된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것만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한국의 1990년대의 지적 풍경이 바로 그랬었죠. 물론 지금도 그것을 벗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 실제 철학자의 텍스트를 읽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공부한 것이 아니죠.

그냥 싸잡아서 배운 거죠. 후기 구조주의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포스트 구조주의다, 탈근대화다 등. 그 추상적인 이름만 갖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지적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인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구체와 추상에 관한 것.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말입니다. philosophy라는 말도 일상생활 속에서 능숙하게 사물을 처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그것이 변화해서 나중에는 상당히 고도화되어서 이 세계를 상당히 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죠.

teoria, 관조(觀照)라는 말도 원래 그냥 보는 것인데 나중에 가면 이 세계를 굽어보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 합이라고 할 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추상세계로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지능이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 논리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

그 다음 문장에서는 플라톤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서구 철학사가 플라톤으로 이행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참 복잡하고 추적하기가 아주 어렵죠. 희랍어 자체도 시대가 내려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죠.

『호메로스』 같은 경우 전문가 아니면 읽기가 어렵죠.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가면 희랍어가 다 정리가 되어서 문법적으로 좀 깔끔해집니다. 플라톤만 해도 아주 어렵고.

일각에서는 원자론이 자연 철학의 최고라고 보는데요. 분석해 보면 그것이 논리적 세계인지 물리적 세계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만 과학이 발달해서

www.artnstudy.com

원리를 찾아가며 마지막에 도달하면 이것이 물리 세계인지 탈(脫)물리 세계인지 구분이 안 가는 정도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원자론 같은 경우 세 가지 규정밖에 없지요. 공간적 크기. 그 다음이 위치. 공간의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죠. 배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색깔도 무게도 촉감도 에너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현대 물리학도 그래요.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생각하는 이 mater를 탐구해서 마지막에 도달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책을 확인하다는 식으로 책의 identify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분자 같은 경우만 해도. identify를 확인하잖아요. 기계를 사용해서. 분광기를 통해서요. 그러나 좀 더 내려가면 알 수 없죠. 예를 들어 이 수학 방정식의 변수가 사물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현상학적으로 생각하는 mater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데모크리토스(Demokritos, BC 460경~370경)의 원자론까지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physical world 인지 logical world인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는 거죠.

이 경우도 과학적 탐구를 한 결과로서 그렇다기보다는 아직 구체와 추상이 구분되지 않은 거죠. 이 사람도 우주라는 실제의 physical world와 존재라는 개념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www.artnstudy.com